

## 지구화 시대와 기독교 지식인의 나아갈 길

박종균(부산장신대학교 교수)

- I. 들어가면서
- II. 지구화 시대의 지식인
- III. 언어 공동체와 우리말의 구조
- IV. 우리 살림살이의 가치
- V. 나오면서

---

• ABSTRACT •

---

Nowadays the post-centric trends require our attention in two points of view. In the one hand, there is no absolute center considering absolute self. There is no unique true world, but many different worlds that are formed in the context of life timely and spacely, and so it is required an open conversation among worlds of knowledge. In the other hand, there is a reflective point on the cultural power of human to transform our world. If the way of various centristic thoughts such as self-centrism, ethnocentrism, human-centrism, and logocentrism make our human and nature into a status of crisis, it deserves to be desperately claimed that those centristic attitudes should be criticized and other alternative attitudes be searche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hat the major task of Christian organic intellectuals is to adopt the universal useful values among our traditional thoughts and tried to suggest and practise them. Though this process, we may find an alternative how to build up the subjectivity of thought under the situation that we hardly meet creative intellectuals suggesting our way in spite of prevailing post-discourses of western style.

This paper is to emphasize that the intellectuals have to free from the colonized circumstances of thought and look straight at our historical and down-to-earth issues, and elucidate them by ourselves. First of all, this researcher asserts that our intellectuals should make efforts to come up against our historical and realistic situations liberated from the colonized status which the knowledge and life do not get along well, and expound our problems for ourselves. Secondly, after this researcher insist that we should be instructed by our language so as to arrange content of our lives in order, from this standpoint I investigate the structure of our language and the view of world streaming under that structure. Thirdly, this researcher have confidence that the grammar of our lives is ‘making a living’, and so intent to suggest that we intellectuals should regard ‘making a living’(emptying, serving, sharing), as an alternative value which we have to practise in the era of globalism. In this place, especially, I recommend Daseok(多夕) Ryu, young-mo for our authentic christian intellectual.

**Key Words** : globalism, Ryu young-mo, making a living, organic intellectual, emptying

---

## I. 들어가면서

오늘날 분출되고 있는 탈중심적 경향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주목을 요하고 있다. 첫째는 절대적 자아를 상정한 절대 중심이란 없다는 점이다. 유일하게 참다운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유한한 시간적 존재인 인간이 다양한 삶의 시간적 공간적 맥락에서 형성해내고 있는 여러 상이한 세계들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세계들 간의 열린 대화가 요청되는 것이다. 둘째는 자연을 인간의 세계로 변형시켜 나가는 인간의 문화적 능력 자체에 대한 반성적 관점이다. 자기중심, 종족 중심, 국가 중심 등과 같은 다양한 중심적 사유 방식이 인간과 자연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면, 이러한 중심주의적 태도가 비판되어야 함과 동시에 다른 대안적 태도의 모색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서구의 지식인들은 탈 중심을 외치면서 자신들의 이성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자연관, 인간관, 세계관이 문제가 있었음을 폭로할 뿐 아니라 그러한 세계 해석의 관점을 유일한 인식론적 틀로 강요하던 서구 중심적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상호 문화적이며 범 지구적인 대화와 토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럴 때 우리는 지금까지 보여 온 식민지적 지식인의 태도를 버리고 스스로 사유할 수 있는 자생력을 함양해야 한다. 니들먼(Jacob Needleman)도 생물학적 종이 하나 둘 파괴되는 것보다 더 걱정해야 할 것은 인류가 상속한 다양한 가치 체계와 고유한 종교적 가르침, 도덕 체계, 의료 지식 체계 그리고 관습, 의식, 상징 에 담긴 사회적 지혜 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이라고 탄식하지 않았던가.<sup>1)</sup> 스스로 사유하지 못하고 주체성을 상실한 지식인 즉, 식민지적 지식인을 진정한 유기적 지식인이라 명할 수

1) Jacob Needleman, 「순수한 물질 위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in Klaus Schwab eds., *Overcoming indifference: ten key challenges in today's changing world*, 장대한 역, 『21세기예측』(서울: 매일경제신문사, 1996), 31.

없다. 그람시가 말하는 유기적 지식인은 스스로의 계급을 의식하고 이를 이론화하면서 상식으로 살아가는 일반인들을 양식 있는 사람으로 이끌 수 있는 지식인을 말한다.<sup>2)</sup> 유기적 지식인은 무비판적 상식이나 종교에 천착하길 거부하고 사태에 대해 비판적 안목을 견지하여, ‘순진한 사람들’을 상식이라는 초보적 철학 속에 남겨두지 않고 더 높은 삶의 개념으로 인도하고 실천하는 지식인이다.<sup>3)</sup>

따라서 유기적 기독교 지식인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은 교회 속에 정주하여 그리스도를 신화화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삶과 삶의 논리를 계발하고 우리의 생활세계를 떠받칠 수 있는 인식론적 틀을 창안하려고 시도하고 거기서 드러난 그리스도적 가치를 실천하는 일이다. 그리스도적 가치란 예언자들의 역사의식으로부터 예수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가치이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으로 내가 아닌 너를 위한, 남을 위한 자기 비움과 희생의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았으며 그러한 삶과 삶을 실천할 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했다. 따라서 그리스도적 가치를 실현하는 지식인은 교리적 바름(orthodox)의 차원을 넘어 바른 사회적 실천(orthopraxis)을 위해 우리의 고유한 사회적 ‘집단의식’과 ‘집단이상’으로서 전통적인 문화적 가치(비움, 섬김, 나눔)들과 이론적 · 실천적 연대를 통해 신적인 가치를 바로 지금 여기서 실현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글에서는 유기적인 기독교 지식인의 과제를 우리 사유 가운데서 현대적으로 보편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취하여 그것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것에 두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오늘날 탈 서구적 담론이 하나의 유행처

2) J. Karabel, 「그람시와 지식인 문제」, 임영일 편저, 『국가, 계급, 헤게모니』(서울: 풀빛, 1996), 187.

3) Carl Boggs, Gramsci's Marxism 저, 강운구 역, 『다시 그람시에게로』(서울: 한울, 1991), 84~97.

럼 퍼져있지만 정작 대안을 제시하는 창조적인 지식인의 모습을 찾기는 흔치 않은 우리네 형편에서 사유의 주체성을 찾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토록 엄청난 문화유산을 물려 받은 민족인 우리가 오늘의 현실을 헤쳐 나갈 대안적 사상 하나 뚜렷이 제시하지 못하고 서구적 사유의 유행을 현학적으로 답습하는 것에서 지식인의 존재감을 찾으려 한다면 ‘기지촌의 지식인’이란 오명을 떨치기 힘들 것이다.

여기서는 첫째 우리 지식인들이 지식과 삶이 겹도는 식민지적 처지에서 벗어나 우리의 역사적 · 현실적 상황을 직시하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풀어내어야 함을 말하고자 한다. 둘째 우리의 삶의 내용을 정돈하는 데는 우리말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됨을 말하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말의 구조와 그 속에 녹아있는 세계관을 알아 볼 것이다. 셋째 우리의 삶의 문법을 ‘살림살이’로 보고 그것을 지구화 시대에 우리 지식인들이 실천해야 할 대안적 가치관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의 수많은 기독교 지식인을 길러내었던 참 지식인 다석 류영모 선생은 “우리의 한글은 하느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글”이며 ‘바른 소리(正音)’이고, 우리 말소리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드러낸 옳은 소리이며 우리 씨울(겨레)이 터낸 소리로서 아름답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글에 담긴 소리와 뜻을 따라 날마다 짓고 만들면 우리 앞길이 환히 트이고 일이 잘 될 뿐 아니라 한글을 쓰는 사람의 속알이 솟아나게 한다 했다.<sup>4)</sup> 나아가 기독교의 진리와 그것과 통하는 모든 진리에 대해 열린 태도를 견지했던<sup>5)</sup> 다석은 지구화 시대 우리가 숙고해야 할 기독교 지식인의 상이 아닐 수 없다.

4) 박영호, 『진리의 사람 다석 류영모』 하(서울: 두레, 2001), 171~173.

5) 류영모의 종교사상이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고, 기독교적이고, 도교적일 수 있었던 것은 각 종교가 말하려는 진리는 결국 하나라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박영호, 『多夕語錄, 죽음에 생명을 절망에 희망을』(서울: 弘益齋, 1993), 59.

## II. 지구화 시대의 지식인

지구화 시대에 지식인들 사이에서 시도되고 있는 탈근대적 사유는 하나의 지역이 하나의 이성, 통일성, 보편성을 절대화시키고 있다는 통찰에서 나온 것이다. 단수의 지배에 대한 탈근대적 저항은 나름의 새로운 삶의 형식을 주장하게 되었다. 탈근대적 사유가 함의하는 바는 우리가 실제로 하나의 다원성과 상호 문화성 속에 살고 있다는 태도와 입장을 지칭하는 것이며, 순전한 임의성과 전적인 동일성을 넘어 다원성을 기꺼이 인정하여 해방시키는 흐름이다. 그래서 리오타르는 근대의 거대 이야기와 싸워 나가기 위해 우리는 아방가르드의 작업처럼 삶의 형태들의 ‘불가공약성’을 드러내고 ‘현시될 수 없는 것’을 끊임없이 문제화해야 하며, 근대의 거대 이야기에 맞서는 ‘미세 이야기’들과 ‘작지만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어내며, 지배담론에 의해 침묵하고 있는 소수의 담론을 해방시키고, 분쟁들을 증언하면서 근대에 저항하자고 외쳤던 것이다.<sup>6)</sup>

탈근대적 사유는, 여러 의미들 가운데 한 의미를, 여러 역사들 가운데서 한 역사를, 여러 세계들 가운데서 한 세계를, 여러 문화 가운데서 한 문화를, 여러 종교 가운데서 하나의 종교만을, 여러 진리 가운데서 한 진리만을 내세우려는 유혹을 뿌리친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 위기의 세계를 구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서구의 비판적 지식인들은 오히려 동양에서 그 대안적 사상을 찾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에 대해 우리는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거기에 알맞은 해결책을 발견해낼 수 있는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통찰력과 더불어 우리 자신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비판이 요구된다. 실제로 서구가 주장하

6) Jean Francois Lyotard 저, 이현복 편역, *Tombeau de l'intellectuel et autres papiers*, 『지식인의 증언』(서울: 문예출판사, 1993), 43.

는 ‘해체’와 한 번도 올바른 ‘중심’을 잡아 본 적이 없는 우리의 ‘해체’는 그 의미가 다를 것이다. 한 번도 이성의 힘을 믿어 본 적이 없는 우리 사회에서 이성을 비판하는 것과 서구 지식인의 이성 비판은 의미가 다르다. 서구가 인간을 ‘절대적 개체’로 상정한 근대를 종식시키고 ‘상호 주관적인 존재’로서의 개인, ‘관계’로서의 개인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과 지연, 학연, 혈연의 존재로만 살아온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sup>7)</sup>

조한혜정은 지구화 시대에 중심에서 소외된 주변부 지식인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편사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서구의 특수성을 알아갈 것, 그들의 담론의 틀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되 그들의 담론을 익히기에 생애를 보내지 말 것, 대신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보며 자기 성찰을 게을리 하지 말 것이다. 완결적 텍스트에 대한 집착은 제3세계적인 혼란을 외면하려는 도피 행위일 뿐이다. 포스트모던적인 모방 속에 자기를 찾겠다는 것 역시 그러하다. 이제 우리들 자신이 직면한 위기를 놓고 우리들 피부에 와 닿는 이야기들을, 각론을 써 가야 한다.<sup>8)</sup>

조한혜정이 우리 지식인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바는 한 마디로 전 세계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세계인으로 호흡하며 살되 사유의 뿌리는 우리네 삶의 세계에 튼실히 박은 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말로 표현하라는 충고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지난 세기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동서의 이념 문제로부터 가장 급박한 문제인 남북문제까지, 더 나아가 가족 문제, 가치

7) 조한혜정,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 읽기와 삶 읽기 2』(서울: 또하나의 문화, 1997), 123.

8) 조한혜정,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 읽기와 삶 읽기 3』(서울: 또하나의 문화, 1997), 30.

관 문제, 생명 문제, 생태계 문제 등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현안이 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풀려고 노력하는 학문적 시도가 눈에 띄지 않는다. 이론은 현실을 자양분으로 해서 자라나며, 그것은 생활 세계에 뿌리내리고 있는 생활 세계적 이성의 산물인데도, 우리는 그러한 이론을 마치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는 보편적인 진리로 간주해왔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의 독특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상황이 전혀 다른 곳에서 정립되어 나온 이론들을 빌려다 쓰기에 급급했다. 이렇게 우리는 지식인들의 직무유기로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는 이론을 마치 우리 것인 양 사용해왔고 따라서 세월이 갈수록 우리에게서 삶과 삶이, 이론과 현실이 겹도는 '식민지적 상황'이 심화되어 왔다.

조한혜정은 '자신의 문제를 풀어갈 언어를 가지지 못한 사회, 자신의 사회를 보는 이론을 자생적으로 만들어가지 못하는 사회'를 '식민지적'이라고 부르며 '식민지성'의 특성의 하나는 지식과 삶이 겹도는 현상이라고 지적한다.<sup>9)</sup> 그러면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담아내는 이론을 생산해내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가? 조한혜정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식민지 지식인은 식민 종주국에서 만들어진 지식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수정할 근거도 필요성도 느끼지 않으며 또 그럴 능력도 없으므로 아예 그가 선호하는 어떤 절대적인 틀을 정해놓고 그 속에서 소비자가 되어 버린다. 그 틀 안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굳혀 가는 길을 찾는 데에만 급급하다. 식민 종주국에서 지식인은 지식의 소비자이자 생산자이지만 식민지의 지식인은 오로지 소비자일 수밖에 없으며, 자신이 여러모로 값을 치르고 구매한 지식을 가능한 한 비싼 값으로 팔고자 할 뿐이다.<sup>10)</sup>

9) 조한혜정,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 읽기와 삶 읽기 1』(서울: 또하나의 문화, 1997), 5.

식민지적 지식인의 감각은 자생적 이론에 혐오감을 갖거나, 거들떠보지도 않게 한다. 같은 내용의 말을 들었더라도 자기 나라 학자들의 말은 인용하지 않고, 외국 학자들이 쓴 책만을 인용한다.<sup>11)</sup> 그래서 김영민은 식민지적 지식인의 행태에 대해 그들은 자발성과 창의성을 상실한 채 “원전에 기대어서 마치 사육당하는 날짐승처럼 날개를 잊어버린 채 정해진 모이를 얻어먹는 것으로 만족하는”<sup>12)</sup> 꼴이라고 통박한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서구적 주체’를 내면화시켜가는 ‘타자화’의 과정이다. ‘타자화’된다는 것은 외부에 있는 ‘초자아’에 기대어 자신을 인식하고 그것에 기대어 힘을 얻는 것을 의미하며, 그로 인해 자신의 삶을 소홀히 하고 하찮게 여기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진리가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진리를 자신이 살고 있는 상황에 맞게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지식인이 주체적으로 지니고 있는가에 달려있다.<sup>13)</sup>

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게 부족한 성찰 능력마저 식민지 상황으로 인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데 있다. 조한혜정의 말을 들어보자.

소위 선진국들의 강압에 밀려 근대화를 급격하게 추진해야 했던 제3세계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자아 성찰의 작업이 더욱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 그들은 외부 자극에 의한 급한 변동 과정에서 자기 진단을 차분히 해낼 여유가 없었을 뿐더러 설혹 성찰을 한다 하더라도 ‘서구’라는 절대 기준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 국한해서 보면 우리가 ‘근대적 언어’를 가지기 시작한 것이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였던 만큼 우리의 자아 성찰은 다분히 식민지적 틀 속에 가두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그래

10) 조한혜정,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 읽기와 삶 읽기 2』, 6.

11) Ibid., 24~25.

12) 김영민, 『탈식민성과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서울: 민음사, 1998), 45.

13) 조한혜정,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 읽기와 삶 읽기 2』, 43.

서 우리의 자아 성찰은 사회를 총체적으로 건드리는 성찰이 되기에는 크게 모자랐던 것이다.<sup>14)</sup>

그래서 자기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풀어낼 틀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의 외국 이론에 매달리게 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바, 일상적 삶을 무시하기에 평면적 분석에 그치게 되고, 자체 내 토론과 합의의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기에 최종적 결론은 언제나 외국 이론가의 권위에 의존해 이루려고 하기 때문이다.<sup>15)</sup>

우리 지식인은 우리의 역사적 · 현실적 상황을 직시하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우리 스스로 풀어보겠다는 성찰적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생활 세계의 논리와 문법에 비추어 생활 세계적 이성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그 해결의 노력을 이론으로 정리하여 인류가 처한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주체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 III. 언어 공동체와 우리말의 구조

우리 지식인들은 우리의 삶이 전개되고 있는 삶의 텃밭인 바로 '이곳'의 현장성을 강조해야 한다. '이곳'은 상황 속에 던져진 인간이 새롭게 자신의 환경에 적응하며 환경을 변형시켜 나가는 그 모든 생활 세계적 문화적 삶의 공간 전부를 포괄한다.<sup>16)</sup> 인간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 던져어져 있

14) 조한혜정,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 읽기와 삶 읽기 1』, 15~16.

15) 조한혜정,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 읽기와 삶 읽기 2』, 18.

16) 이기상, 『한국화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 기톨릭 어디로 갈 것인가』(서울: 서광사, 1997), 49.

며, 그 환경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자기 자신도 변해 간다. 이렇게 인간은 환경 속에 놓인 존재로서 환경의 영향을 받고 환경에 영향을 가하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삶의 공간을 만들어 나간다.<sup>17)</sup> 인간의 이러한 환경의 선형적인 조건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이다. 환경에 대한 인간 측 대응의 산물인 문화는 남과 더불어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공동으로 환경에 대처해 나가면서 자신들의 생활 세계를 형성해 나가는 인간의 세계 형성의 노력인 것이다.

바로 삶과 삶의 연계는 언어에 의해 가능하게 된다. 물론 언어는 개개의 민족들이 언어 공동체를 이루며 사용하고 있는 ‘모국어’가 될 것이다. 모국어를 떠난 지식인이 지식인을 진정한 의미의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 지식인의 식민 상태가 모국어를 바탕 하지 않은 데 그 주된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고 구체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 언어 속에 간직 되어 있는 우리만의 독특한 의미 체계, 세계관, 삶의 문법 등을 읽어내야 한다.

## 1. 지식인과 언어 공동체

인간 개개인은 그가 그 속에서 성장한 일정한 공통언어를 사용한다. 이 공통어가 모국어다. 일상생활에서도, 학문에서도 모국어가 개인의 해석과 사유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결정적으로 간섭하고 있다는 것이 확증된다. 따라서 우리는 모국어가 우리를 대신해서 사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sup>18)</sup> 모국어는 모든 인간에 있어 그의 언어 공동체의 언어인 바, 우리말은 한국의 언어 공동체에 속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 소유

17) Michael Landmann, 진교훈 역, *Fundamental-Anthropologie*, 『철학적 인간학, 역사와 현대에 있어서 인간의 자기이해』(서울: 경문사, 1977) 참조.

18) Leo Weisgerber, 허발 역, *Muttersprache und Geistesbildung*, 『모국어와 정신형성』(서울: 문예출판사, 1993), 162.

재라 할 수 있다. 언어에 있어서는 어떤 인간도 이 소속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떤 인간도 그 자신의 개인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모국어를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언어의 소유는 언어 공동체에 대한 소속성으로부터 인간에게서 생겨나며, 인간은 그의 모국어를 습득하면서, 즉 인간은 이 언어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서 자라나는 것이다.<sup>19)</sup>

개별 구성원들이 동일한 상황으로부터 균일한 사상을 획득한다는 의미에서 공통의 언어로부터 한 공동체 안에 사유 행위의 내용적인 통일성이 생겨난다 할 수 있다. 개인에 있어서 사유의 동일성이 그의 언어로부터 생겨나는 것처럼, 한 언어 공동체에 있어서의 사유의 동종성은 공통의 언어로부터의 결과이다.<sup>20)</sup>

모든 민족에게는 그의 언어 속에 하나의 세계관이 간직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를 언어 공동체의 운명, 그 지리적 · 역사적 형세, 그 정신적 조건과 외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 그 민족의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언어만큼 한 민족의 운명과 견고하게 결합된 것은 없으며, 한 민족과 그 언어와의 사이에서 보다 더 밀접한 상호 작용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sup>21)</sup>

언어 공동체는 다른 모든 공동체의 전제이다. 그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기 때문만이 아니며,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의 토대가 되는 공통의 세계관을 매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인간의 공동생활과 공동 작용에 대한 전제가 어디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언어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며, 그렇게 해서 한 언어의 효력 범위는 한 민족에게 자연적인 영역이 된다. 한 언어에 속하는 모든 이들은 그 어떤 다른 공동체보다도 서로 가까이 있으며, 그들은 운명적으로 서로, 그리고 그들의 언어와

19) Ibid., 69.

20) Ibid., 78.

21) Ibid., 134.

결합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sup>22)</sup>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체험 내용을 정돈하는 데 우리말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우리의 인식을 개념적으로 논리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도 우리말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며, 우리의 행위 역시 우리말의 지도를 받아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우리는 잘 갈무리된 세계관을 우리말을 통해 전수받으며 그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서 주체적으로 사유해야 하는 우리 지식인들이 최우선적으로 공부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말인 것이다.

## 2. 우리말의 구조

탈식민지성에서 벗어나서 다중심 시대를 주체적으로 대비해야 할 우리 지식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언어를 갖고 있으면서도 서구만을 바라보며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답습하기에 급급했고 우리말과 우리 것을 천시해온 까닭으로 인해 우리말의 연구는 커녕 제대로 활용되지도 못했다.<sup>23)</sup> 그러면서 우리말이 학문을 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언어인 것처럼 여겨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말에 대한 천시의 발로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간단하게 550여년전에 발간된 『訓民正音 解例本』<sup>24)</sup>만을 보아도 우리말이 얼마나 철학적인 바탕 위에서 우리의 생활 방식과 의식 구조를 반영하여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다석은 『해례본』에서 밝힌 한글의

22) Ibid., 136.

23) 남영신, 『국어 천년의 실패와 성공』(서울: 한마당, 1998) 참조.

24) 정인지, 신숙주, 성삼문 등이 일반 백성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주기 위해 세종대왕의 명에 따라 1446년에 지은 『訓民正音 解例本』에 의하면 정음 28자는 음양, 오행 등의 철학 사상에 바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정호 편, 『훈민정음, 해설 역주』(서울: 한국도서관학연구회, 1972) 참조.

기본 원리와 구조를 존중했다. 한글의 자음은 입(목구멍·어금니·혀·이·입술)의 모양을 본떠 만들고 음의 강도에 따라 삼 단계화하였고, 모음은 · ㆍ(천) ㅡ(지) ㅣ(인)을 으뜸으로 하여 만들어졌는데, 단지 · ㆍ(아래아)가 빠진 것을 늘 아쉬워했으며, · ㆍ는 반드시 살려 내야 한다고 보았다.<sup>25)</sup>

다른 한 편 다석은 독특한 한글 철학을 제시한다. 먼저 첫소리의 맨 처음 두 글자 ㄱ과 ㄴ을 천지인 사상으로 설명한다. ‘ㄱ’은 하늘의 그늘, ‘사람의 머리 두는 데’를 나타내고 ‘ㄴ’은 발바닥이 땅바닥을 딛는 모양을 나타내기애 한글 자음의 처음 두 글자 ㄱㄴ은 “하늘과 땅, 위와 아래, 머리와 발”을 나타낸다.<sup>26)</sup> 즉 ㄱ은 사람의 “머리가 하늘을 어르는 으뜸(제)”를 그린 것이고, ㄴ은 사람의 “발바닥이 땅바닥을 딛는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이라고 함으로써 다석은 첫소리의 처음 두 글자인 ㄱ과 ㄴ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늘과 땅을 함께 나타내는 천지인 철학을 담고 있다고 하였다.

이어 다석은 모음의 원조인 · ㅣ ㅡ가 각각 하늘, 사람, 땅을 나타낸다는 훈민정음의 천지인 사상을 더욱 심화시켰다. 아래아 · ㆍ는 “모든 것이 천(天)에 원(元)하고 시(始)하고, 환(還)하는 원만(圓滿)”을 나타낸다. ㅡ(으)는 평지 곧 세상을 보이며, ㅣ(이)는 “사람이 곳곳이 선 모습”을 나타낸다.

‘ㅣ’는 사람의 ‘나’를 가리키는데 ‘ㅣ’이 위쪽 ‘꺾’이 “우주, 인생, 사물이 함께 형클어져 된” “실뭉치(생명과 말씀)의 한 실의 꺾”이다. 그리고 만물은 (말씀의) ‘온 꺾’이다. “모두가 올이요, 실이요, 끈이요, 줄이다.” 다석에 따르면 ‘나’도 우주와 인생과 만물도 한 생명, 한 말씀(생명: 살리는 말씀)의 형클어진 실뭉치의 실오라기, 꺾트머리이다. ‘나’의 ‘꺾’에서 새악이 나

25) Ibid., 175~176.

26) 김홍호 편, 『제소리: 다석 류영모 강의록』(서울: 숲, 2001), 325~326.

와 ‘온 끝(만물)’의 실마리를 끊기도 하고 잇기도 하여 풀어 나간다.<sup>27)</sup> ‘1’로서의 ‘나’는 말씀과 생각을 통해서 땅(물질세계)의 만물에서 참의 실마리를 찾아 하늘(하나의 세계)로 이어 나가고, 하늘을 이루어 가는 존재이다.<sup>28)</sup> 이렇게 한글의 글자에 의미 부여를 함으로써 다석은 한글의 새로운 의미를 생성시키고자 했다.

사상은 말과 글에서 나오고 말과 글은 삶에서 나온다. 또한 말과 글과 사상이 삶을 형성한다. 말과 글을 이해하는 것은 삶을 이해하는 것이고 말과 글을 갈고 닦는 것은 삶을 갈고 닦는 것이다. 다석에 따르면 우리말과 글 속에 깊은 의미가 담여 있는데, 그것을 갈고 닦아야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석은 한자와 외래어로 오염된 우리글과 말을 끊임없이 갈고 닦았으며, 오랜 세월 속에 잊히고 묻힌 우리말을 찾아내서 사용했다.<sup>29)</sup>

뿐만 아니라 다석은 일상의 우리말에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농부들이 소를 몰 때 쓰는 말인 “와(가자), 워(서라)”를 거룩한 말로 만들었다. ‘와’는 ‘와라’, ‘오너라’이고, ‘워’는 ‘우어’, ‘우에’이다. 다석에 의해서 ‘와, 워’는 하느님께서 아들을 보고 ‘위로 아버지에게로 오너라’라는 뜻

27) Ibid., 326~327, 329.

28) 다석은 사람을 하늘과 땅 사이에 끈계 선 존재로 보았다. 따라서 위에서 아래로 끈계 내려 그은 1가 사람을 나타내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하늘과 땅 사이에 끈계 섬, 하늘을 머리에 입, 참 생명을 이어 나감을 말하는 ‘1’의 철학(박영호는 이를 막대기 철학이라 불렀다)을 제시했다. ‘1’철학은 하늘과 땅 사이에 꽃꽂이 서서 하늘과 땅을 잇는 천지인 합일의 철학을 말한다. 다석은 일제강점기에서 세수할 때조차 허리 숙이기를 거부했던 단재와 마찬가지로 늘 허리를 꼴꼴이 했다고 한다. 일제와 외세에 굴복한 민족의 운명을 떨치고 꽃꽂이 일어서려는 주체적 의지와 정신이 깃든 사상이 아닐 수 없다. 김홍호, 『다석일지공부』 1(서울: 숲, 2001), 6.

29) 다석이 찾아낸 말들 중에 몇 가지만 예를 들자. 글월(문장), 알맞이(철학), 마침보람(졸업), 누리(세상), 사람새(인간), 예(여기), 빈탕(허공), 다세움(민주), 여름질(농사), 열(영), 나위힘(능력), 잘몬(만물), 우리오리(윤리)푸른나이(청년), 늙은이(노자), 말썬나무(종교) 등이다. 류영모, 다석학회 엮음, 『다석강의』(서울: 현암사, 2006), 132~133.

이 되었다. 다석은 한글 글자들을 여러 가지로 변형시켜서 영적인 뜻을 나타내고자 노력했다. 한글의 모음 ‘아야 어여 오오 우유 으이’를 변형시켜 ‘아가야 어서 오너라, 위(하느님 아버지께로)’의 뜻이라고 의미부여했다.<sup>30)</sup>

또 다석은 존재와 삶의 근원과 뿌리인 하느님 ‘아버지’를 ‘으ㅂ디’에서 ‘으’는 느낌씨 ‘아!’인데 근원에 대한 기쁨과 고마움을 나타내고, ‘ㅂ’는 ‘밝음’, ‘ㅂ’을 나타내는데 근원이 밝게 드러남을 뜻하고 ‘디’는 ‘딛는다’는 뜻인데 땅에 발을 굳게 디디고 근원인 하느님의 뜻과 진리를 실천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말년에는 늘 ‘으ㅂ디’를 부르면서 다녔다고 한다.

이에 머물지 않고 다석은 — | · 를 예수의 십자가와 연결시켰다. — | · 를 겹치면 가운데 · 가 있는 십자 형태가 된다. 예수가 달린 십자가는 — | · 를 나타낸 나무이다. — | · (하늘)와 —(땅)을 잇는 나무 막대기 | (정신)는 겨레의 뿌리인 단군, 다시 말해 나뭇등걸과 ‘등글’ 나무(杵)을 나타낸다. | 는 세상을 뚫고 솟아오르는 십자가이자 곧게 올라간 분이신 그리스도와 겨레의 얼과 뿌리인 단군(등걸)을 동시에 나타낸다.<sup>31)</sup> 이것은 어디까지나 다석의 상상력이다. 그러나 곧고 꼳꼳한 나무 막대기가 한글 — | · 를 매개로 해서 진취적인 서구 기독교적인 정신과 등글로 원만한 한국의 정신을 심오하고 아름답게 결합시켰던 것이다.

이처럼 다석은 일찍이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한글 연구를 통해 한글의 원리와 우리의 사상을 해명했다. 다석의 연구에 대해 김홍호는 그 연구가 지닌 보편적이고 세계적인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글 속에 숨어 있는 진리를 밝히는 것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할 일이며, 한글 속에 숨겨진

30) 박영호, 『진리의 사람 다석 류영모』 하, 173, 185.

31) 다석은 단군이 등걸(樸), 등글(杵)이라 보았다. 최남선이 단군을 탕그리(몽골어)라 보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다석은 막 씨는 단군의 후손이라고도 했다. Ibid., 200~201.

하느님의 뜻이 풀리는 순간 한국에 정신문화가 수립되고 그로인해 전 세계가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sup>32)</sup>

이처럼 우리말만을 연구해도 우리만의 독특한 사상을 재구성해낼 수 있건만 우리 지식인들은 그동안 우리 것을 갈고 닦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현실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요청된다 하겠다.

#### IV. 우리 살림살이의 가치

이렇듯 우리말 속에, 민족의 기억과 정서 속에, 한민족의 무의식 속에 깔려있는 우리 민족의 세계관을 이루어온 천지인 합일의 삶의 형태를 어떻게 오늘에 되살려 삶의 모델로 삼고 21세기를 위한 가치관을 형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지식인에게 던져진 물음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인의 생활 세계를 보이지 않게 규정해온 생활세계의 이성온 한마디로 ‘살림살이’이다.<sup>33)</sup> 살림살이는 현재 전 세계를 하나의 세계로 통합시키면서 자신의 지배 영역을 지구상 곳곳으로 뻗치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표상화하고 수량화하면서 죽음으로 내모는 국제 금융자본의 경제논리가 아니라 모든 것을 살도록 감싸주고 보살펴주는 삶과 삶의 논리를 말한다. 여기서는 지구화 시대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적 가치, 즉 우리의 ‘살림살이’ 가치를 살펴볼 것이다.

우선 살림은 ‘살리게 함’이다. ‘살리다’는 그냥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음과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살아 있음의 상태를 바람직

32) 김홍호·이정배 편, 『다석 유영모의 동양사상과 신학: 동양적 기독교 이해』(서울: 솔, 2002), 286~287.

33) 이기상, 「21세기 기술사회를 위한 새로운 가치관 모색」, 『한국가톨릭철학』 창간호, 1999, 102~125 참고. 이 글에서 이기상은 ‘살림살이’의 가치관으로 살림, 섬김, 비움, 나눔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한 가치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여 살아 있는 것이 그 살아 있음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보살피는 것을 말한다. 사람은 다른 살아 있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살아 있는 것의 ‘살아 있음’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정호완은 ‘살다’라는 말은 원초적으로 보아 불이 타고 에너지가 정지 상태에서 운동 상태로 옮겨간다는 뜻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에너지는 태양에서 비롯되었기에 태양은 예로부터 불의 상징이었고, 삶의 바탕인 대지를 생성시키는 ‘火生土’의 본거지이며 모든 생명체를 유지시키는 에너지 공급원이다.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 정지 상태에서 운동 상태로 가는 것이 넓은 의미의 ‘사르다’, ‘살다’를 의미한다면 땅 위, 하늘 아래에 있는 변화하여 움직이는 모든 것은 사름(삶)을 명 받은 생명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땅 위 하늘 아래 사이에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름을 알기에 그것을 살려 ‘사름’이 계속되도록 돕는 전형적인 ‘사름’이며 또한 그러한 삶을 알기에 삶을 살면서 살림살이를 사는 ‘삶앓( )사람’인 것이다.<sup>34)</sup>

우리 지식인들이 실천해야 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 사는 살림살이로 가는 길’, ‘살림살이’의 기본적인 가치들 즉, ‘섬김’, ‘비움’, ‘나눔’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자.

## 1. 섬김

만물을 생성시키는 천지는 그 사이가 비어있으면서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없이 계시는 것’이 우주적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그것을 ‘하늘님’이라고 숭배했던 것이다. 하늘님은 없이 계신다고 단언하는 다석은 신은 어디 있는 것이 아니며 언제 어디에 어떻게 생겨난 것이

34) 정호완, 『우리말의 상상력. 우리말 어휘의 기원을 통해 본 겨레의 정서와 의식구조』, 227.

아니며 또한 무슨 이름으로 불리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sup>35)</sup> 왜냐하면 신이라는 것이 어디 있다면 신이 아니며 언제부터 있었다고 하면 신이 아니고 언제부터 어떻게 생겨서 무슨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하늘님(하느님)의 ‘없이 계심’에서 우주적 생명의 본질은 ‘있음’에 있지 않고 ‘빔(無, 虛)’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이 참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내게 건네주는 열이 참된 거룩한 생각이므로, 하느님께서 건네주는 열이 없으면 참된 생각을 얻을 수 없다. 참된 거룩한 생각은 하느님과 의 바른 관계 속에서 통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석은 늘 하느님을 생각하는 곳에 하느님이 계신다(念在神在)고 하였다.<sup>36)</sup>

우리는 변화하는 모든 것에서, 특히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을 그것으로 서로 도우면서 없이 계신 열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섬김’이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나서 그 자신으로 서서 우주적 생명의 전개 과정에 편입되도록 관여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열’을 알아보고 모시는 것이다.

그렇기에 ‘섬김’은 살아 있는 것을 그것이 지닌 우주적 영성, 신령한 생명력을 모시는 것이며, 그것이 그 살아 있는 대로 서서 자신의 고유함을 유지하며 우주 생명의 생성 과정에 자신의 몫을 할 수 있도록 거리를 두고 받들어 모시는 것을 말한다. 즉, 인간 안에 살아 있는 영성, 이웃 안에 살아 있는 영성, 곧 우주 생명을 이웃 공경을 통해 살리는 것이며, 동식물과 무기물 등 모든 자연 안에 살아 있는 영성, 곧 우주적 생명을 자연 공경을 통해 살리는 살림살이이다.

섬김은 무엇보다 먼저 내 안에, 이웃 안에, 우리 곁의 그 모든 생명체

35) 류영모, 『다석어록』(서울: 현암사, 2006), 15, 34, 98, 275. 老子가 『도덕경』 1장에서 갈파한 “道可道 非常道, 名可名 非常名”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36) 류영모, 『다석어록』, 96~97.

안에, 우주의 삼라만상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주의 신령한 존재, 다시 말해 ‘없이 계시는’ 거룩한 하느님을 받들어 모시는 것이다. 다석에 의하면 ‘거룩함’은 한마디로 ‘없이 계심’이다. 인간은 ‘없이 계심’에 접근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에게 더 이상 ‘성스러움’도, ‘신적인 것’도, ‘신성’도 없어져버린 것이다. ‘없이 계심’은 오직 얼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은 ‘얼나로 거듭나야만 그 성스러움과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느님은 없이 계신다. 그래서 하느님은 언제나 시원하다. 하느님은 몸이 아니다. 얼이다. 얼은 없이 계신다. 절대 큰 것을 우리는 못 본다. 아직 더할 수 없이 온전하고 끝없이 큰 것을 무라고 한다. 나는 없는 것을 믿는다. 인생의 구경(究竟)은 없이 계시는 하느님 아버지를 모시자는 것이다.”<sup>37)</sup>

인간이 ‘얼나로 거듭날 경우 인간의 자유는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선택이나 결단이나 의지의 자유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우주의 삼라만상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의 자유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인간이 ‘몸나의 욕망을 다스리고 ‘맘나의 주체성을 놓아 보내고 ‘얼나로 솟날 때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서 활동하는 얼과 하나로 어우러져 우주 생명의 생성, 전개, 유지, 보존 과정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2. 비움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살리며 그것들과 더불어 살아온 조상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늘과 땅 사이 어디에선가 생겨나서 잠시 지금 여기에 머물다가 다시 무(無) 속으로 사라져버리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재물에 마음을 뺏기고 재물 때문에 목숨 거는 일을

37) 박영호, 『다석 류영모의 생애와 사상』 하(서울: 문화일보, 1996), 321.

부질없는 것으로 보았다. 色卽是空(유형의 만물인 색은 모두 인연의 소생으로 그 본성은 공)의 불교적 가르침을 가까이 하며 지내온 한국인들은 존재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기를 배워왔다. 즉, 존재하는 것에 현혹되어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미혹되어 살지 말 것을 가르쳐져왔던 것이다. 서구의 존재 중심, 현전 중심의 태도가 ‘없이 계신’ 하느님을 몰아내어 인간 중심의 세계로 만들었으며, 그렇게 모든 형태의 보이지 않는 것을 다 몰아내어 ‘無 제거’의 서구 역사가 인간으로 하여금 존재만을 욕망하고 존재자만을 소유하려는 욕망의 화신으로 만든 것이다.

우리 지식인들은 이제부터라도 존재 중심의 사유 태도와 생활 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무와 공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sup>38)</sup> 무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못 보던 성스러움의 영역을 감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절대자 하느님, 무한대의 허공 그리고 열의 맘은 왔다가 가거나, 났다가 죽거나, 있다가 없어지는 상대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 꽃은 보는데 보통 꽃 테두리 안의 꽃만 보지 꽃 테두리 걸인 변두리의 허공에는 눈길조차 주려고 않는다. 꽃을 있게 하는 것은 허공이다.<sup>39)</sup>

무에서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생성 유지하는 큰 바탕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사유와 삶의 모델도 그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존재 중심의 시야에서는 ‘존재’가 모든 것의 척도와 기준일 수밖에 없다. 존재의 위계질서가 세워지

38) 다석은 “나는 빔(空)에 가야 해방된다고 생각한다. 불교나 노자는 한마디로 빔이라고 하면 된다. 서양 사람들은 이 빔을 모른다. 有만 가지고 제법 효과를 보지만 원대한 것을 모르니 갑갑하기만 하다. 서양 문명은 벽돌담 안에서 한 일이다. 빔(空, 無)에까지 가야한다. 빔은 절대자가 아니다. 절대자 하느님의 마음이다. 절대(하느님)의 아들은 빈탕(虛空)을 바라야 한다.”라고 무와 공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강조한다. 박영호, 『다석 류영모의 생애와 사상』 하, 320~321.

39) Ibid., 66.

고 최고의 존재자는 존재 자체이며 제일원인(prima causa)이며 부동의 동자(the unmoved mover)이다. 이러한 존재의 특징은, 무한히 공간을 점령하여 자신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이며 시간의 흐름 속에 변하지 않고 남아 있어 자신의 동일성을 견지하는 것이며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절대적인 지배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존재 중심의 사유에서는 진리조차 권력의지와 연결된다. 진리를 추구하려는 열정은 소유와 정복을 위한 권력의 지에 다름 아닌 것이다.<sup>40)</sup> 그렇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아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자처하는 인간은 이러한 존재의 모델에 맞추어 자신과 세상을 만들어 온 것이 삶의 방식이요 종교적 양식이었다.

존재에서 ‘없이 있음’으로 전환하여 우주의 열과 진실한 관계를 맺는 데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는 인간은 더 이상 ‘존재의 대리인’이 아니라 ‘무의 청지기’일 것이다. 존재 중심의 사고방식이 소유, 정복, 고집, 집착, 지배 등이라면 무 중심의 살림살이는 ‘비움’이다. 그래서 법정 스님은 인간은 온갖 욕망과 자신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우주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한다.<sup>41)</sup> 맑은 가난, 즉 청빈이야말로 우리 스스로를 우주적인 생명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며 절제된 아름다움이며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기본적인 조건이다.

다석의 삶 역시 자발적인 청빈을 추구했다. 노동자 복장을 하고 밖에 나가려면 나가겠지만 부자의 차림을 하고는 못 나가겠다고 말하던 다석은 자녀들이 대학 교육을 받아 지배층이 되어 하느님의 미움을 사는 것을 원치 않아 자녀들을 중학교만 나오게 했을 뿐 아니라, 그는 사람이 참되게 살려면 서민으로 겨우겨우 살아야 한다고 했다.<sup>42)</sup> 더 나아가 “참 종교는

40) Michel Foucault, *The Archaeology of Knowledge* (New York: Pantheon, 1972), 215~237.

41) 법정·류시화, 『산에는 꽃이 피네』(서울: 동쪽나라, 1998), 34.

42) 박영호, 『진리의 사람 다석 류영모』 하, 2004

상놈의 종교”라면서 “종교가 귀족적이 되면 이미 영원한 정신을 잃은 것”이라고 했으며, “노동자 농민이 세상의 짐을 지는 어린양”<sup>43)</sup>이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여성이 귀인, 한사(閑士)들의 속구주(贖垢主: 때를 빼는 분)”<sup>44)</sup>라고 말했다.

마더 테레사의 영성적 체험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순수해지기 위해서는 희생으로 우리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 포기란 나의 자유 의지, 이성, 생명을 믿음의 자세로 봉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영혼은 어둠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시련은 맹목적인 포기의 가장 확실한 시험입니다. 포기 역시 사랑을 의미합니다. 더 많이 포기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느님과 인간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sup>45)</sup>

### 3. 나눔

우주적 생명은 서로 나눔으로써 그 생명을 유지 보존하고 있으며 나눔 것에 대해 보상을 바라지 않고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도 없다(生而不有, 爲而不恃).<sup>46)</sup> 인간도 이러한 우주적 생명이 현장에 동참하려면 이러한 나눔의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 탐욕을 버리고 자기를 비워 우주의 열과 하나가 되려는 인간은 영성적으로 가난에 참여한 자이다. 즉, 나눔은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들과 사랑을 나눔으로써 생명을 나누는 영성적인 행위이다. 이렇게 사랑과 생명을 나눔으로써 우리는 가난한 자와 연대하

43) 유영모, 「집집」, 『다석일지』(영인본) 상, 1982, 789~792.

44) 김홍호 편, 『제소라: 다석 류영모 강의록』(서울: 솔, 2001), 323.

45) Mother Teresa 저, 지은정 역, *No greater love*,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서울: 바오로의 딸, 1998), 87~91.

46) 노자, 『道徳經』 2장. ‘무소유를 주장하는 동양적 사유는 노자의 “생이불유”(만물을 생성시키면서도 그 결과를 자기의 소유라 고집하지 않는다)의 사상적 틀 속에서 움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 우주적 삶에 동참하게 된다.

법정 스님은 나눔이란 “이미 받은 것에 대해 당연히 지불해야 할 보상의 행위이고 감사의 표현이다. 나눔으로써 이 세상을 제대로 건널 수 있다. 육바라밀(여섯 가지 지혜) 가운데 보시 바라밀을 첫째가는 바라밀”<sup>47)</sup>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을 나누어야 할 우리 시대의 가난한 자는 누구인가? 마더 테레사는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굶주린 사람과 고독한 사람, 먹을 것만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에 굶주린 사람, 목마르고 무지한 사람, 물만이 아니라 지식 평화 진리 정의 사랑에 목마른 사람, 헐벗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태어나지 않은 아이, 버려진 사람, 인종 차별을 당하는 사람, 떠돌아다니는 사람, 벽돌로 만든 집뿐만이 아니라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줄 사람이 없는 사람, 병자, 죽어가는 빈자, 갇힌 사람(몸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갇힌 사람), 삶의 희망과 신앙을 모두 잃어버린 사람, 알코올 중독자들과 마약 중독자들 그리고 하느님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그들에게 하느님은 과거에 속한 분이지만 사실 하느님은 지금도 계시는 분이다). 또 성령의 힘 안에서 희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sup>48)</sup>

그리고 테레사는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 하느님의 실존 앞에서 섰을 때 가난한 이들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 판단 받게 될 것인 바, 그렇기에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인간성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sup>49)</sup>

---

47) 법정, 『산에는 꽃이 피네』, 161.

48) Mother Teresa 저, 황예경 역, *A Simple path*, 루신다 바디 편, 『사랑의 등불 마더 테레사』(서울: 고려원, 1996), 28~29.

49) 마더 테레사,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131.

‘산다’는 것은 자신을 살라버리고 없애버려 우주적 생명의 일에 동참하는 것임을, 그렇게 자신을 가르고 나누어 우주적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끊임없이 자신을 나누면서 생명의 전개 과정에 동참하는 것이 살림살이의 대원칙이다. 달리 말해, 나누지 않으려고 고집하는 사람은 생명의 질서, 생명의 흐름을 막는 자가 아닐 수 없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정신적 경제적 도움을 위해 노력하는 기독교인의 실천과 불자들의 실천에 갈등과 싸움이 있을 수 없다. 고통 받는 자연과 이웃을 살리기 위해 섬기고 비우고 나누는 일에 어떠한 종교적 편견이나 울타리도 존재할 수 없다. 사랑과 자비에는 편벽한 답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말의 속에 담긴 세계관에서 읽을 수 있는 생활세계의 이성이자 우리 살림살이의 영성, 즉 우리 지식인들이 제시하고 실천해야 할 지구화 시대의 대안 문명적 가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의 삶은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이 하나가 되어 존재하는 모든 것과 생명의 교감을 나누며 살아온 천지인 합일의 삶이고, 천지인이 하나의 거대한 우주적 생명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만나는 살아 있는 모든 존재를 살리기 위해 섬기고 비우고 나누고 사는 생명 중심의 삶이다.

## V. 나오면서

이제 우리는 서구가 과학과 기술을 앞세워, 다른 민족과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기를 감추고, 국경 없는 자본 시장에 돈의 힘을 빌려 지구의 곳곳에 침투하여 강력한 영향력으로 전 세계를 ‘지구화’라는 이름의 서구화로 획일적으로 통합시키려는 시도가 몰고 올 사태를 예견해야 한다. 이러한 지구화 시대의 의미를 읽어내지 못하고 기술과 과학, 자본에 도취되어 세계를 하나의 문화로 획일화시키는 조작을 방관한다면 우리 지식인들

은 인류문화 학살의 방관자 나아가 그 ‘앞잡이’라는 혐의를 벗기 힘들 것이다. 우리 지식인들이 우리말로 앎과 삶을 이어나가야 할 당위성은 지구의 위기와와의 관련성에서도 드러난다. 그것은 주체적인 하나의 대응방식이기도 하거니와 현재 인류가 모색하는 새로운 사유의 패러다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성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존재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파악할 수 있다. 존재에 대응되는 인간 측의 관계의 축은 이성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관계를 역전시켜 마치 이성에 의해서 파악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간주하는 것은 문제다. 이성 중심의 사유 태도와 생활 방식 속에서는 존재의 외부라 여겨지는 무·공·허가 없는 것으로 무시되고 제거되고 망각되어 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반이성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으로 간주해온 서구적 지식 세계는 특별히 탈근대적 사유가 요청되는 오늘날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세계의 산물로서 형성된 이성은 서구의 보편적 이성과는 달리 무·공·허와도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았다. 오히려 이 무·공·허가 존재나 유보다 더 근원적인 것으로 간주해왔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다석은 이것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얼’(영성)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인간의 능력을 이성에서 얼의 차원으로 끌어올릴 때 우리는 현대와 같은 위기적인 지구화 시대에 걸맞은 인간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온갖 삶의 위기를 노출하고 있는 지구화 시대에 우리의 삶에서 분리되지 않은 앎을 통해 스스로 사유의 식민지성을 자각하고 새로운 영성, 살림살이의 영성으로 생명 중심의 문명을 만들어가기 위해 숙고하고 실천하는 일이 유기적인 기독교 지식인들에게 요청된다 하겠다.

## 참고문헌

- 김영민, 『탈식민성과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서울: 민음사, 1998).
- 김홍호 편, 『체소리: 다석 류영모 강의록』(서울: 솔, 2001).
- 김홍호, 『다석일지공부』 1(서울: 솔, 2001).
- 김홍호·이정배 편, 『다석 유영모의 동양사상과 신학: 동양적 기독교 이해』(서울: 솔, 2002).
- 남영신, 『국어 천년의 실패와 성공』(서울: 한마당, 1998).
- 노자, 오강남 풀이, 『도덕경』(서울: 현암사, 1995).
- 류영모, 『집집』, 『다석일지』(영인본) 상, 1982.
- \_\_\_\_\_, 『다석어록』(서울: 현암사, 2006).
- \_\_\_\_\_, 다석학회 엮음, 『다석강의』(서울: 현암사, 2006).
- 박영호, 『多夕語錄. 죽음에 생명을 절망에 희망을』(서울: 弘益齋, 1993).
- \_\_\_\_\_, 『다석 류영모의 생애와 사상』 하(서울: 문화일보, 1996).
- \_\_\_\_\_, 『진리의 사람 다석 류영모』 하(서울: 두레, 2001).
- 법정·류시화 엮음, 『산에는 꽃이 피네』(서울: 동쪽나라, 1998).
- 이기상, 『21세기 기술사회를 위한 새로운 가치관 모색』, 『한국가톨릭철학』 창간호, 1999.
- \_\_\_\_\_, 『한국화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 가톨릭 어디로 갈 것인가』(서울: 서광사, 1997).
- 이정호 편, 『훈민정음, 해설 역주』(서울: 한국도서관학연구회, 1972).
- 정호완, 『우리말의 상상력. 우리말 어휘의 기원을 통해 본 겨레의 정서와 의식구조』(서울: 정신세계사, 1991).
- 조한혜정,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 읽기와 삶 읽기 1』(서울: 또하나의 문화, 1997).
- \_\_\_\_\_,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 읽기와 삶 읽기 2』(서울: 또하나의 문화, 1997).
- \_\_\_\_\_,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 읽기와 삶 읽기 3』(서울: 또하나의 문화, 1997).

Bogg, Carl 저, 강운구 역, Gramsci's Marxism, 『다시 그람시에게로』(서울: 한울, 1991).

Foucault, Michel, The Archaeology of Knowledge, New York: Pantheon, 1972.

Karabel, J., “그람시와 지식인 문제”, 임영일 편저, 『국가, 계급, 헤게모니』(서울: 풀빛, 1996).

Landmann, Michael 저, 진교훈 역, Fundamental-Anthropologie, 『철학적 인간학, 역사와 현대에 있어서 인간의 자기이해』(서울: 경문사, 1977).

Liotard, Jean Francois 저, 이현복 편역, Tombeau de l'intellectuel et autres papiers, 『지식인의 종언』(서울: 문예출판사, 1993).

Mother Teresa 저, 황애경 역, 루신다 바디 편, A Simple path, 『사랑의 등불 마더 테레사』(서울: 고려원, 1996).

Mother Teresa, No greater love, 지은정 역,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서울: 바오로의 딸, 1998).

Needleman, Jacob 저, 장대환 역, “순수한 물질 위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in Klaus Schwab eds., Overcoming indifference: ten key challenges in today's changing world, 『21세기예측』(서울: 매일경제신문사, 1996).

Weisgerber, Leo 저, 허발 역, Muttersprache und Geistesbildung, 『모국어와 정신형성』(서울: 문예출판사, 1993).

논문투고일 : 2009. 10. 31

심사개시일 : 2009. 11. 10

게재확정일 : 2009. 12. 05

---

• 국 문 초 록 •

---

우리는 이성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존재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파악할 수 있다. 존재에 대응되는 인간 측의 관계의 축이 이성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관계를 역전시켜 마치 이성에 의해서 파악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간주해왔다. 이성 중심의 사유 태도와 생활 방식 속에서는 존재의 외부라 여겨지는 무·공·허가 없는 것으로 무시되고 제거되고 망각되어 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반이성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으로 간주해온 서구적 지식 세계는 특별히 탈 근대적 사유가 요청되는 오늘날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세계의 산물로서 형성된 이성은 서구의 보편적 이성과는 달리 무·공·허와도 관계를 맺고 있다. 오히려 이 무·공·허가 존재나 유보다 더 근원적인 것으로 간주해왔다. 다석 류영모 선생은 이것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알(영성)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인간의 능력을 이성에서 알의 차원으로 끌어올릴 때 우리는 현대와 같은 위기적인 지구화 시대에 걸맞은 인간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온갖 삶의 위기를 노출하고 있는 지구화 시대에 우리의 삶에서 분리되지 않은 삶을 통해 스스로 사유의 식민지성을 자각하고 새로운 영성, 살림살이의 영성으로 생명 중심의 문명을 만들어가기 위해 숙고하고 실천하는 일이 유기적인 기독교 지식인들에게 요청됨을 해명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첫째 우리 지식인들이 지식과 삶이 겹도는 식민지적 처지에서 벗어나 우리의 역사적·현실적 상황을 직시하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풀어내어야 함을 말하고자 한다. 둘째 우리의 삶의 내용을 정돈하는 데는 우리말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됨을 말하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말의 구조와 그 속에 녹아있는 세계관을 알아 볼 것이다. 셋째 우리의 삶의 문법을 ‘살림살이’로 보고 그것을 지구화 시대에 우리 지식인들이 실천해야할 대안적 가치관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핵심어** : 지구화, 류영모, 살림살이, 유기적 지식인, 무

---